

2010생명구원의 역사(20100525)

게시자 : 주사랑빛

작성일 : 2010년 1월 2일 새벽 2시 9분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며 눈물이 났어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 부족한 자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올해 첫 주일 말씀이 너무 귀한데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하며 간구 드렸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적어라.

올해 나의 가장 큰 바람은

선생을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이야기 하였다.

올 한해 나는 많은 자들을 이곳에 오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전도의 차원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나의 원대한 계획이며

인생을 구원시키는 하나의 크나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인류는 많은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노라.

스스로 얼마나 깊은 흑암의 늪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이다.

오랜 시간 이것을 보아온 나는 드디어 결심을 하였고,

어느덧 심판의 문턱에 서있다.

그러나 그 문을 들어서기 전에 날 막는 자 있으니, 예수였다.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한 해를 참았고 또한 너희를 지켜보았다.

예수의 말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참으로 많이도 변화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심판의 문 앞에 서 있다.

나는 이 한해 심판의 문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것이 전도이다.

2010년도 주와 함께 생명 구원의 역사 일어나리라.

모두 일어나 빛을, 전도의 빛을 발하여라.

나 여호와 축복하리니,

모두 깨어 더 깊은 기도와 찬양과 행함을 하라.

모두 행하라.

결국 행하는 자 앞에 이길 자 아무도 없느니라.

주일 말씀을 통해 전하는 나의 철저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라.

반드시 행하라.

내가 왜 전도를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 섭리에 창대케 일어나지요?)

그렇다. 믿음이 표적을 보이리라.

(믿습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매일 주 예수와 함께 한다면 불가능이 있으라.

내가 모든 권능으로 함께 하리니 모두 주 예수와 함께 하라.

곧 나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섭리사에게 그 어느 해 보다 전도의 능력에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능력을 주노라.

주일말씀에 완벽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라. 행하라.

각자의 능력은 기도의 깊이에 따라 내가 줄 것이다.

진실로 나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모두 나의 창조물이니 어찌 가만히 놔두랴.

사랑함으로 모두 거두고자 하니

모두 나에게 고하고 행하고 나를 사랑할지어다.

나를 보듯 생명을 대하고

나와 생명을 연결시키는 중매쟁이가 되고,

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 되어라.

영으로 너희 곁에 거하는 나 여호와의 마음을 전해주길 원한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노라.

오직 생명구원의 역사, 2010년의 나의 큰 포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 말씀)

나 예수이니라.

올해 나는 크나큰 나의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다.

이것을 통해 섭리사 또 다른 차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내가 진정 바라는 법이 있다.

선생을 통해 외치는 나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지켜볼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너희 심령에 새기며, 말하려는 깊은 속 뜻이 있다.

(혹시 주님,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까?)

그래 맞다.

나의 사랑으로, 나와 너의 완성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한다.

온전한 사랑을 해야 온전한 진리를 전할 수 있다.

사랑한다. 나의 섭리사여.

이 새벽에 사랑을 전하노라. 진정 사랑한다.

너희 모두 나와 함께 생명 구원의 역사 이루는

기도하는 섭리사 신부들 되리라.

나의 섭리여,

한해 표적의 역사 일으켜 보아라.

더 철저히 관리하라.

기도하며 전도하여라.

나를 모두 알게 준비하라.

오직 너와 나 일대일 관계임을 가르쳐주어라.

사랑해.

섭리사 모두의 신랑 예수가 전하노라.

나와 함께 하면 불가능이 없노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에게 묻는 것이니,

기도로 묻고 생활 속 대화, 선생에게 물음으로 묻고

나의 사상과 정신을 더 우선하여 물어라. 묻고 행하라.

나에게 모두 맡기면

나와 함께 생명구원의 역사, 섭리 전체 일어날지어다.

전도는 사랑함으로 하라.
전도는 즉 사랑이다.
전도로 나와 일체되어라.
반드시 올 한해 이루어지리라.

너희 선생은 나와 일체이니
내가 그를 통해 말하지 않겠느냐.
나의 한도, 사랑도, 심정도, 마음도
모두 그의 입술을 통해 말한다.